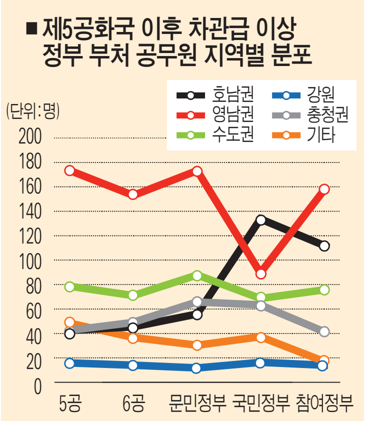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73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4월 19일 (음력 3월 3일) 목요일

호남 인재 차별 받았다

5共이후 차관급이상 영남 37%…호남·수도권은 19%

DJ정부때 중용…참여정부 다시 홀대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가운데 영남 출신은 37%(747명)에 이르는 반면 호남 출신은 19%(38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 인맥의 정부 고위직 독점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영·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지역감정이라는 망국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적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고위급 공직 인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선 주자들의 공정 인사 공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제5공화국부터 참여정부까지 차관급 이상 공무원 현황' 자료를 광주일보가 지역별·정권별로 재분류,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분석 결과 상보는 본보 20일자 8면 게재 예정〉**

분석 결과 1980년 출범한 제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 27년동안 배출된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 2천16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747명(37%)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출신은 386명(19%), 서울 등 수도권 출신 384명(19%)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충청 출신은 262명(13%), 북한·제주·해외 등 기타 지역 출신이 171명(8%), 강원 66명(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남을 연고로 한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과 김영삼 정권에서의 호남 인재 소외 현상은 두드러졌다. 전두환 정권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9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10.2%인 41명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영남 출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73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3%를 차지, 호남 출신보다 무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두환 정권을 물려받은 노태우 정권에서도 호남 인맥 소외는 계속됐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370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46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이에 반해 영남 출신은 전체의 41%인 153명으로 집계돼, 호남 인맥에 비해 무려 3.3배 이상 많았다.

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영삼 정권에서도 영·호남 출신 고위 공직자 격차는 여전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25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전체의 13%인 57명에 그쳤지만 영남 출신은 전체의 40.7%인 173명으로, 호남 인맥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영남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중앙 부처의 호남 인맥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변화의 양상을 보였다. 차관급 이상 공직자 40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31명으로 전체의 32%를 차지, 90명(22%)에 그친 영남 인맥의 벽을 넘어섰다.

지역적 태생은 영남이지만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출범했다는 측면에서 영·호남 복합정권 성격의 참여정부에선 호남과 영남 출신 차관급 이상 비율이 다시 역전됐다. 전체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418명 가운데 호남 출신은 111명(26%)에 그쳤으나 영남 출신은 158명(38%)으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

수천명의 추모객들이 17일 밤(현지시각) 버지니아공대 캠퍼스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참석,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촛불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민과 슬픔을 함께 합니다"

버지니아 참사 애도 물결…美경찰 "치정 얽힌 범행인 듯"

▶관련기사 4·5·6·7면

미국 수사당국은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범인 조승희의 범행동기가 여자 친구와 관련한 치정사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이번 총격사건으로 사망한 메리 리드 양(19)은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버지니아 경찰서장은 17일 최승현 주미대사관 워싱턴지역 영사와의 면담에서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사건의 동기는 치정이나 이성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ABC 방송은 범인 조승희(23)씨가 먼저 기숙사에서 2명을 살해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권총에 총탄을 장착한 뒤 '혼란스런' 내용의 노트 메모를 남겼고, 여기에 '너 때문에 이 일을 저질렀다'(You caused me to do this.)는 글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공대 캐슬 콜리지엄에서 열린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 "오늘은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날"이라며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로마노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희생당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유가족, 미국 국민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위로 전문을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알 림

제 52 회 전국대회 호남예술제

음악·국악·무용부문 4월 23일~5월 22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 광주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제52회 호남예술제의 경연 일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 바랍니다.

◇ 경 연 일 정 ◇

일자 \ 장소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광주시민회관/광주대학교/호남신학대학교
4월23일	월		음악/성악독창 초등부1,2/5,6학년/ 예선
24일	화		음악/성악독창 초등부3,4학년 / 예선
27일	금		음악/성악독창 초등부 / 본선
29일	일		음악/피아노(중등,고등부)/예선 (호신대)
30일	월		음악/피아노(초등부1,2학년) / 예선
5월 2일	수		음악/피아노(초등부5,6학년) / 예선
3일	목	음악/관악(독주)	음악/피아노(초등부3,4학년) / 예선
4일	금	음악/현악(독주)	
9일	수		음악/피아노(초등부3,4학년) / 본선
10일	목		음악/피아노(초등부1,2/5,6학년) / 본선
12일	토	무용/한국전통무용 · 한국창작무용	
13일	일	무용/현대무용 · 발레	음악/피아노(중,고등부)/본선 (호신대)
16일	수	국악/초,중,고등부(합주 포함)	
19일	토		음악/성악독창 중등부 · 고등부(광주대)
22일	화	합주제(관현악)/합창제/락페스티벌	

※ 자세한 개인별 경연순서는 진행프로그램이나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개인별 예비소집이나 통지는 없습니다.

□ **미술, 작문, 논술부문 예선**(공모 및 실기대회 병행) **및 결선**
1. 예선공모기간 : 5월 1일(화) ~19일(토)
2. 현장예선실기대회(미술·작문부문) : 5월 11일(금) (장소:금호패밀리랜드)
※현장실기참가자는 5월9일(수)까지 신청 바랍니다.
※논술부문은 현장 예선 실기대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예선결과발표 : 5월 29일(화) (결선실기대회 일시·장소 발표)
4. 시상내역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새싹그리기 축제(유치부) 공모**
1. 예선공모기간 : 6월1일(금)~19일(화)
2. 시상내역 : 우수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

□ **문의** : http://www.kwangju.co.kr (062)220-0541

주 최 : 광주일보사
협 찬 : SAMSUNG 삼성생명
후 원 : 문화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유치를
광주·전남도민이 다함께 기원합니다.
EXPO 2012 YEOSU KOREA

통합신당 내달 6일 창당

민주·신당모임 합의…이번주 발기인 대회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이 다음달 6일 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주 내에 발기인 대회와 창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

민주당과 통합협상모임의 통합신당 창당이 구체화됨에 따라 범여권의 대통합과 정치권 안팎에 있는 범여권 유력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8일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각기 내부 회의를 열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탈당해 통합신당모임 소속 의원들과 창당준비위를 구성해 창당 절차를 밟은 뒤 민주당과 합쳐 다음달 6일에 신당을 창당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이날 오후부터 정강정책분과와 당헌당규, 조직분과 등 3개 분과회의를 열어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두 정파 간의 통합에 대한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상담홍보실 (062)970-0114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상담홍보실 1588-5051 ▶T.(061) 360-5000